

# 서울시, 모아주택·타운 통합심의 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기대

###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확대 소위원회로 신속 심의 진행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 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심의위원회로 변경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분야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축·도시계획 등을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시 사업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다수 포함된 소규모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

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 기간을 2개월 이상 추가 단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세대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금 추세라면 2026년 3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1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예술회관역 사거리 일대에 첫 눈이 내리고 있다. /뉴시스

## 서울시, 폭설 대비 보도·이면도로 제설 강화

###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 운영 맞춤형 장비·도로열선 추가

서울시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차도뿐 아니라 보도·이면도로 제설을 강화하고 도로 열선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제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차도 위주의 제설로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보도·이면도로 제설에 차도 수준으로 인력 등을 투입한다. 기존 인력·수작업 제설 방식에서 맞춤형 장비를 대폭 투입한 ‘기계식 제설’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보도·이면도로 제설장비 300여대를 추가 도입해 총 500여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제설작업을 지원한다. 폭설시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보도용 제설장비를 통한 제설작업 지원에 나선 계획이다.

한파와 폭설로 차도에 얼어붙은 눈도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의 장비도 강화한다. 도로 파손의 우려가 적으면서도 제설효과가 높은 ‘고강도 고무삽날’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설차량에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 제설차량 383대 전량에 고강도 고무삽날을 장착하여, 2단계 대설주의보 이상의 제설작업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설취약구간에는 초기 제설 효과가 높은 자동제설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도로열선 200개소, 염수분사장치 41개소 등을 경사로, 응달진 곳 등에 새롭게 설치해 총 844개소의 자동제설장비를 운영,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도로열선은 강설 시 감지센서가 작동해 도로에 매설된 발열선으로 눈을 녹이는 장치로, 200개소에 추가 설치해 총 442개소에 운영한다.

터널, 지하차도 진출입로 등 도로구조상 결빙의 우려가 높은 21개소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경고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 도로 주변 환경을 분석해 결빙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차량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설작업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전진기지’ 66개소를 주요거점에 설치 운영한다. 제설장비와 제설제를 신속히 투입·보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존 전진기지 80개소와 함께 총 146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수능 가채점 결과로 입시 전략 구성해야”

### 면접 등 대학별고사 앞두고 있다면 수능 점수 따라 수시·정시 중 결정 정시 목표 시, 영역별 성적 구조 파악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은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한 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수능 직후 신속하게 가채점 진행해 ‘정시 지원 가능성’ 파악해야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기 위해서다. 수시모집에 응시한 대학에 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 기회는 박탈된다. 이번 수능 성적이 좋아 앞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상위

권 대학으로 정시 합격이 가능한 경우 수시 전형에 응시하기보다 정시에 도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가채점은 영역별 원점수, 예상 등급은 물론 예상 표준점수, 백분위, 상위 누적 백분위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면 가채점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영역별 등급컷이 입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기관 발표를 종합해 살펴보는 게 좋다.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애매할 경우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선택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이라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기준은 수능 가채점 성적이다.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과 자신의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입시기관 제공 종이배치표는 각 대학

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점수’가 기준이므로 실제 대학별 유틸리티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세밀하게 정시 지원 가능선을 점검하고 싶다면 종이 배치표, 온라인 배치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라며 “정시 지원 가능선을 확인했을 때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보다 더 높거나 선호하는 대학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피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면 응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정시 지원 전략 구성해야”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기로 했거나, 정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금부터 정시 지원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기 성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면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 학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탐 II 과목을 선택했다면 과탐 II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학과를 지원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일부 대학의 경우 3개 또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며 “그러므로 하위권 학생들은 본인 수능영역별 성적을 잘 파악해 유리한 대학을 찾아 도전해 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때 정시 지원 가능선을 기준으로 상향에서 하향 대학 및 학과를 순별로 5개 이상 찾아보라고 추천했다. 이후 각 대학의 수능 평가 방식을 확인해 자신의 유틸리티를 가늠해 보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 파주시 캠핑장, 공공 우수 야영장 선정

### 별난독서문화체험장, 특색경험 제공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3년 공공 우수 야영장에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캠핑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은 급격히 증가하는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양질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야영장을 발굴하여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가족(어린이)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안전, 위생 기준 등에 대한 조건을 부합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20개소를 선정했다. 가족(어린이) 친화 부분에 선정된 별



야영장 전경.

난독서문화체험장 캠핑장은 폐교된 금곡초등학교를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부반아 활용한 교육 체험시설로, 캠핑장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독서와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그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문화재단, 파주문화재단 등과 연계한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영화와 음악, 독서가 함께하는 특색 있는 경험을 제공해 이용객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6 | 해짐 / 17:18

**11월 20일 (월)**  
음력 : 10월 8일

**수도권 날씨**  
1 ~ 1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4/10, 동두천 -3/11, 가평 -2/11, 양평 -2/11, 용인 1/11, 평택 -2/12, 수원 1/11, 파주 -4/11, 서울 1/11, 인천 2/10, 백령도 7/1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백악관 복귀하면 첫날 바이트 추진 IPEF 폐기할 것” /사진 뉴시스  
▲美바이든 “‘팔’ 자치정부가 가자·요르단강서안 함께 통치해야”

▲하마스, ‘이’군 폭격으로 “인질들 지키던 부대와 통신단절”  
▲“이·하마스, 교전중지 잠정합의”… 백악관 “아직 합의없어”



▲러시아서 온라인범죄 발생 비율 사상 최고치…전체 범죄의 33%  
▲中·파키스탄, 사상 최대 해상훈련 종료…아라비아해 첫 합동순찰 /사진 뉴시스